

2017년

제7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

일시

2017. 8. 25(금), 14~18시

장소

예산군 봉림권역 “봉림센터”
- 예산군 봉산면 봉명산로 18(봉림리 89번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목 차 CONTENTS

제 7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

개 요	01
-----	----

추진 목적 및 프로그램 일정표

<1부> 예산군의 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동향

주제 발표 1	05
---------	----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현황”

백두성 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주제 발표 2	19
---------	----

“예산군 귀농귀촌과 마을만들기”

이태백 귀농귀촌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2부> 조별토론

마을과 귀농인, 화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	39
------------------------	----

“3대 주제에 대한 실천과제 및 주체별 역할 도출”

진행 : 충남센터 / 토론자 : 참석자 전원

부 록

귀농귀촌을 둘러싼 10대 쟁점 토론 설문조사 결과	45
-----------------------------	----

제7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예산)

-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

“ 사회 전체의 다양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각자의 정체성이 존중되고,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한다.”(2015 전국 마을선언 초안, 제37절)

현재 농촌에는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측면에서는 마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일 수도 있으나 현실에서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정서를 모른다고 탓하고, 귀농귀촌인들은 마을이 텃세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마을에서 중재할 사람도 없는 현실에서 마을 밖 사람이 중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귀농귀촌자 간의 정체성이 존중하는 문화가 마을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차이와 능력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동으로 마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8회 대화마당의 쟁점은 ‘농촌마을과 귀농귀촌’입니다. 농촌마을과 귀농귀촌이 대립이 아닌 양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8회 대화마당(서천군)의 10대 쟁점토론 중 실천과제 도출이 가능한 3대 주제를 선별하여 조별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산군에서 개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학습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 시 : 2017. 8. 25(금) 14:00 ~ 18:00
- 장 소 : 예산군 봉림권역 “봉림센터”
- 예산군 봉산면 봉명산로 18(봉림리 89번지)
- 주 최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연구회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 참석대상 : 열정이 있고 공부하려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
- 참 가 비 : 무료
- 참가문의 : 이동주 연구원(010-9249-9828, djcountry@nate.com)
- 관련 사이트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www.cnmaeul.net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정석호 책임연구원

시간	진행내용	비고
~ 14:00	·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4:00~14:30	· 연구회 취지 및 오늘의 주제 소개 (구자인 센터장) · 참가자 자기 소개 (전원)	
14:30~15:10	<1부> 예산군의 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동향 ·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현황 - 백두성 팀장 * 마을소개 동영상 시청 · 예산군 귀농귀촌과 마을만들기 - 이태백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귀농귀촌팀장	40분 (질의응답 포함)
15:10~15:20	· 휴식 및 교류	명함 교환
15:20~16:40 (80분)	<2부> 조별토론 : 마을과 귀농인, 화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조별토론 주제 설명 : 2016년 8회 대화마당 토론분석과 해결방안 필요성 설명 • 조별토론 : 3대 주제에 대한 실천과제 도출과 실천을 위한 주체별(마을, 행정·중간지원조직) 역할 도출 ①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 어떤 방법이 모두에게 좋을까? : 귀농인 직접지원, 소속 마을 지원, 원주민 역차별 해소 방안 ② 올바른 토지 정보 제공과 매매 어떻게 해야 할까? : 빈집정보 온/온라인 제공, 이장을 통한 토지매매 정보 제공 ③ 귀농인이 마을과 화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은? : 마을기금, 마을회의 참석, 마을규약 제정	구자인 정석호 * 조별 토론 지원 (충남센터 연구원)
16:40~16:50	· 휴식 및 교류	
16:50~17:50 (60분)	· 분과별 발표 및 질의응답	사회 : 구자인
17:50~18:00	· 광고 및 정리 : 차기일정 등 홍보	9.22(금), 아산시
18:00~19:00	· 저녁식사 및 교류회	

※ [참고] 월별 운영계획

회차	일시	주요 내용	비고
1차	2.24	• 종합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의 만남	워크숍
2차	3.31	• 홍성군 :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홍성군지원센터 개소식
3차	4.21	• 금산군 : 금산군청+지역활성화센터 • 쟁점 : 농촌 마을과 중심지활성화 연계	4.20~21 3농혁신대학 연계 진행
4차	5.26	• 천안시 :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 쟁점 : 도농통합시의 마을간 협력방향	
5차	6.30	• 보령시 :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 협업과 지역네트워크	11월 충남대회 협의
6차	7.28	• 서천군 : 서천군농촌마을지원센터 • 쟁점 : 농촌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과 운영	
7차	8.25	• 예산군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 쟁점 :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	
8차	9.22	• 아산시 :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 쟁점 : 중간지원조직의 행정 직영과 민간위탁	10.3(화)~6(금) 추석 연휴 관계로 일정 변경
9차	10.27	• 공주시 : 공주시흥미진진나드리센터 • 쟁점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중간지원조직	협의 필요
종합	11.24	• 종합토론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시군 지원센터 활동 우수사례 공유	제4회 충남대회(11월초)

* 향후 상황에 따라 개최 시군 및 시기, 주제(쟁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부】 예산군의 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동향

| 1-① 주제발표 |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현황

- 백두성 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충남대화마당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현황

2017. 08. 25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CONTENTS

- 1 필요성 및 목적
- 2 비전 및 조직구성
- 3 운 영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01.필요성 및 목적



01 필요성 및 목적

1. 설립배경



희망마을 만들기의 지속 가능한 “자치시스템 구축”

01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역량만큼 행정과 민간단체의 지원시스템도 매우 중요함

02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충청남도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의 재점검과 개선방향을 모색

03

중간지원조직 설립

예산군에서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를 설립

01 필요성 및 목적

2 목 적



활성화 필요

기존에 시행된 마을만들기 효과와 사업의 지속력이 미미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주민 주도 형식의 마을 만들기 진행에 따른 운영관리 한계점을 극복하고, 예산군과 주민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형태가 필요**



4

01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목적

3 추진현황



01 행정

1. 운영방향 결정
2. 마을행정 TF팀 협업강화
3.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02 민간단체 네트워크

1. 수탁법인 설립
2. 관련분야 협력관계 명시

전문성

“예산군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현장성

지속성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1.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2. 마을 밀착형 지원네트워크 구축

5

02.비전 및 조직구성



02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목표

1. 비 전 

마을 행복을 만나다!

예산군행복마을지원 지역활동가 역할 수행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일원으로 “지역활동가 역할 수행”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1. 추진사업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는 2015년 12월 공주대학교 내 센터 설립 승인을 시작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10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1. 추진사업



1차(15~16년) 추진사업

- | | | |
|----|----------------|----------------------------------|
| 01 | 마을대학(1,2기) 운영 | 마을 만들기 기본 교육(마을 위원장 대상) |
| 02 | 마을 정보화 DB구축 | 예산군 마을현황 및 발전계획 정보화 구축 |
| 03 | 추진조직체(1회) 구성 | 마을 단위 사업 추진의 조직체(추진위원회) 구성 |
| 04 | 리더추진회(1회) 팀별지원 | 사업완료지구마을 향후 발전방안 모색 |
| 05 | 주민워크숍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역할 홍보, 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
| 06 | 소식지 발행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창간 및 운영 현황 알림 |

11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1. 추진사업



1기 마을대학



마을 정보화 DB 구축



1회 마을 추진조직체 구성 및 운영공모



제1회 행복마을협의회 구축을 위한 주민워크숍

12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1. 추진사업



2차(16~17년) 추진사업

01

마을대학(3,4기) 운영 민간 협의체 구성 및 마을만들기 교육

02

마을 정보화 DB구축 예산군 마을현황 및 발전계획 정보화 구축

03

추진조직체(2회) 구성 마을 단위 사업 추진의 조직체(추진위원회) 구성

04

리더추진회(2회) 팀별지원 사업단위 협의체 구성 및 지원(5개팀 구성 지원)

05

주민워크숍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사업추진보고 및 협의체별 발전방향 토의

06

행복마을 체험부스 예산군 산림박물관 · 온천축제, 제3회 마을대회 홍보부스 운영

13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1. 추진사업



3기 마을대학



행복마을 체험부스 운영



2회 마을 추진조직체 구성 및 운영공모



제2회 행복마을협의회 구축을 위한 주민워크숍

14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2. 2017년 추진사업 현황



시군역량강화사업(10), 희망마을 선행사업(1),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2) 3가지의 분류로 13개의 사업을 시행

분 류	세 부 사 업	수 량	유 형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장안대학	7개 마을	공모
	우리마을 쓰리고	3개 마을	공모
	조직체 구성 및 운영 공모	3개 마을	공모
	현장포럼	2개 마을	교육
	리더 역량강화 및 위탁교육	1식	교육
	센터 소식지 5호 발간	1식	홍보
	예산군 마을대회	1식	홍보
	예산군 마을지도 제작	1식	홍보
	사업완료지구 컨설팅	2개 마을(권역)	컨설팅
	마을위원장협의회 지원	1식	운영지원
희망마을 선행사업	컨설팅(마을발전 계획수립)	5개 마을	컨설팅
행복마을 만들기	동아리 활성화 지원	9개 마을	공모
	푸른예산 만들기	7개 마을	공모

15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3 2017년 추진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장안대학

예산군 일반마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장안학교 운영을 통한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우수마을은 향후 현장포럼 대상마을로 선정

01

02

우리마을 쓰리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쓰리고)사업은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유도

조직체 구성 및 운영 공모

마을만들기 추진조직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마을의 기존조직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직체 구성과 운영

03

04

리더 역량강화 및 위탁교육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등 리더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지원
리더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사업 추진 유도

16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3 2017년 추진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



센터소식지 발간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군 마을홍보를 통하여 마을간 교류 역할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주관 사업내용 및 결과 공유를 통한 마을만들기 참여 유도

05

06

예산군 마을대회

마을과 단체의 사업성과를 공유, 마을과 단체를 홍보하고 교류를 통한
예산군 행복마을협의회 조직의 공고화

예산군 마을지도 제작

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군 마을홍보지도 제작
지도 제작을 통하여 예산군 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

07

08

사업완료지구 컨설팅

마을사업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갈등 요소 등 운영 문제점 도출과
활성화 대책 수립

17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3 2017년 추진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



현장포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조사 및 발굴로 마을진단과 마을발전계획수립을 통한 단계별학습 진행

09

10

마을위원장협의회 지원

마을위원장협의회 자체적인 사업 발굴 및 운영 지원
법인 설립 및 역량개발을 위한 선행학습 운영



18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4 2017년 추진사업-희망마을 선행사업



01

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 확보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 역량 확보



02

전문성 보완

조성되어지는 시설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사업의 진행과정을 조절

주변자원 분석, 연계 및 사업화

마을 사업 진행에 있어 활용 가능한 주변자원 분석 및
향후 연계사업에 대한 확립

03



마을발전계획 수립

04

마을 발전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추진방법론 등에 대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마을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

19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5. 2017년 추진사업-행복마을 만들기



예산군은 지자체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1. 동아리 활성화 지원

4기 마을대학과의 연계

4기 마을대학은 수료한 마을을 대상으로 소액 공모사업으로 지원
주민참여형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을 사업의 경험 축적

2. 푸른예산 만들기

CAC사업과의 연계

주민주도의 환경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향후 CAC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예산군 내
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동아리 프로그램

20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6. 소통스튜디오



■ 시군창의사업(소통스튜디오) 추진

01 →

읍면단위 및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영역 간 네트워크의 부재
사회적 경제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과 사회적 경제영역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02 →

지역자치 기반의 새로운 공동체 활동 미진
지역자치기반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03 →

예산군의 분야별 문화활동 및 전파 미진
마을, 청년, 귀농귀촌, 사회경제적 조직 등의 문화 전파 및 활동을 연계 필요

04 →

마을만들기를 위한 공간 조성 필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21

03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운영

6. 소통스튜디오



■ 시군창의사업(소통스튜디오) 추진



22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는 마을주민 모두가 행복한 날까지 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 예산군의 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동향**| 1-② 주제발표 |****예산군 귀농귀촌과 마을만들기**

- 이태백 귀농귀촌팀장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귀농 · 귀촌과 마을만들기

이 태 백

(예산군 귀농귀촌 네트워크 회장)

CONTENTS

1. 귀농귀촌의 현황
2. 활동 보고
3. 향후 계획

I. 귀농귀촌의 현황

1. 전국적 현황

2. 예산군의 현황

3.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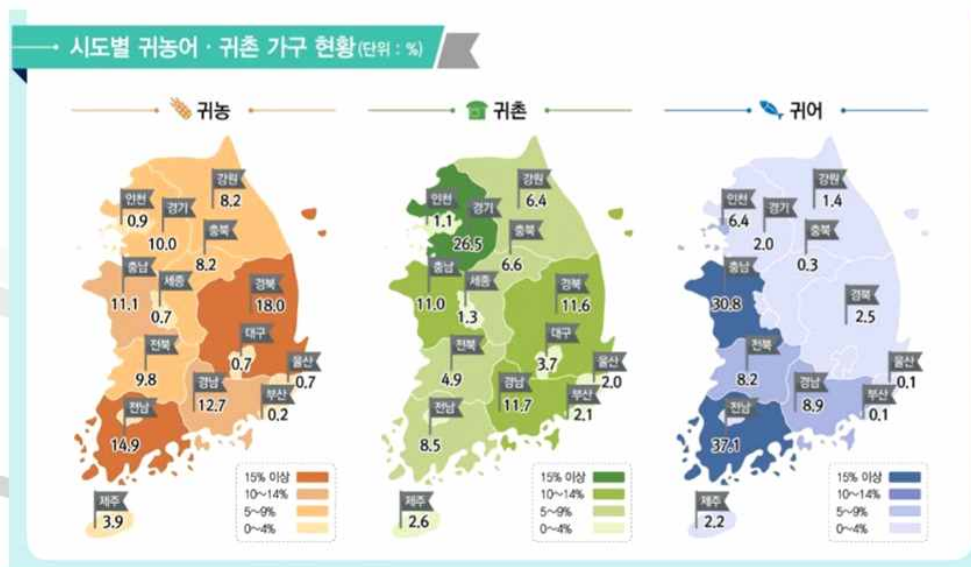
4. 해외 사례

I. 귀농귀촌의 현황

귀 농 귀 촌 함 의 화 학 미 음 만 들 기

1. 전국적 현황

- ❖ 경북이 2,323가구(18.0%)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고, 전남(1,923가구), 경남(1,631가구),
- ❖ 충남(1,423가구), 경기(1,283가구), 전북(1,263가구), 강원 (1,058가구)이 1,000가구를 상회



1. 전국적 현황

❖ 시도별 귀농가구 현황

구분	전국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12,875	27	92	122	87	84	1,283	1,058	1,052	1,423	1,263	1,923	2,323	1,631	507
	(100.0)	(0.2)	(0.7)	(0.9)	(0.7)	(0.7)	(10.0)	(8.2)	(8.2)	(11.1)	(9.8)	(14.9)	(18.0)	(12.7)	(3.9)
2015	11,959	31	72	103	84	64	1,061	986	928	1,374	1,164	1,869	2,221	1,612	390
	(100.0)	(0.3)	(0.6)	(0.9)	(0.7)	(0.5)	(8.9)	(8.2)	(7.8)	(11.5)	(9.7)	(15.6)	(18.6)	(13.5)	(3.3)
증감	916	-4	20	19	3	20	222	72	124	49	99	54	102	19	117
	(0.0)	(0.0)	(0.1)	(0.1)	(0.0)	(0.1)	(1.1)	(0.0)	(0.4)	(-0.4)	(0.1)	(-0.7)	(-0.5)	(-0.8)	(0.7)
증감률	7.7	-12.9	27.8	18.4	3.6	31.3	20.9	7.3	13.4	3.6	8.5	2.9	4.6	1.2	30.0

5

2. 예산군의 현황

❖ 충청지방통계청이 11월 말 내놓은 2015년 충남도내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개 시군은 순이동률(총전입률-총전출률)이 증가하고, 5개 시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격적인 사실은 공주시에 이어 예산군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크다

❖ 두 지역은 각각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로의 빨대효과가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예산군과 같이 도청이전으로 내포신도시에 일부 편입된 홍성군은 순이동률 3.2%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내포불균형 개발의 결과가 인구이동 통계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군의 경우 2014년 단 한차례 순이동이 100명(0.1%) 증가해 희망이 보이는가 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 1100명(-1.3%)으로 10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희망의 싹이 짙었다.

예산군 인구 9만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007년, 불과 10년만에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

홍성군도 같은 해 나란히 9만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201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9만선을 회복한 뒤 꾸준히 늘고 있다



6

2. 예산군의 현황

‘제5회 (사)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가 열리는 충남 예산군은 전체인구 약 8만 5000명 중 농업인구가 2만 5000명으로 예산군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에 걸맞게 민선 6기 농업정책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로 정하고 그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균정을 펼치고 있다.

- 한국농업신문 (등록 2016.08.23 19:12:19)-



7

2. 예산군의 현황

- 1)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 가운데 77개가 30년 이내에 소멸 예정이며, 거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이며 전남은 22개 중 17개, 전북은 14개 중 10개이며, 예산군의 인구는 2007년 9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군도 소멸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 2) 현재 8만 명의 군민들 중 65세 이상이 약 25%이며 이들이 30년 후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예산군의 인구는 6만 명 이하로 줄어듦
- 3) 현재 2만 5천명의 농민들 중 65세 이상은 약 40%에 이르며 30년 후에는 농민의 수는 1만 명 정도로 예측
- 4) 지자체의 붕괴를 막고,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
- 5)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자체의 붕괴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방해
- 6) 인구 유입의 방법은 신도시 건설, 대학 유치, 삼성, LG 등의 대기업 유치, 평택의 고덕 단지와 같은 대규모 복합 단지 유치, 대형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유치, 크고 작은 일반 산업단지 유치,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유입

8

예산군 귀농 귀촌 현황 (2013년~2015)

년도	귀농	귀촌	합계	비고
2013	89가구 132명	1572가구 2000명	1661가구 2132명	
2014	81가구 131명	1559가구 2025명	1640가구 2156명	
2015	90가구 141명	1642가구 2095명	1732가구 2236명	

자료제공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대화 마당 in 서천 2016년 10월 28일, 금.)

3. 국내 사례

[전북 고창군] 귀농귀촌 전담팀 신설해 전폭 지원, 선배귀농인들 헌신적 노력도 큰 힘
3년 연속 귀농실적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의 귀농귀촌인구는 2014년 12월 말 현재 3792가구, 7368명이다. 고창군 전체 인구가 6만여명 정도이니 전체 인구의 12%가 귀농귀촌인 인 셈이다. 2007년 10월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고창군과 귀농귀촌 선배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일궈낸 성과다. 고창은 이장님들 중 10% 이상이 귀농인 출신이다.

현재 월곡에 있는 뉴타운 커뮤니티센터에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5명)과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3명)가 함께 입주, 총 8명이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고창군은 우선 5~10가구 정도의 소규모 귀농귀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이나 상하수도·가로등 설치 등 기반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협의회와 협력해 선배 귀농인의 집 30여가구를 확보, 예비 귀농인들이 편안하게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3년간(2013~15) 10억44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패밀리 5563 정착 프로그램'도 차별화된 정책 중 하나다. 2012년 공음면의 한 폐교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이론과 실습을 겸한 전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간의 상호 정보 교환은 물론 친구를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돼 2016년까지 80억원(국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귀농 희망자들이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업 창업에 대한 실습·교육·체험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마련될 예정이다

3. 사례종합

[경북 상주시] 입주자 주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성과, 귀농 롤모델사업으로 안정 정착 도모

상주시는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통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04가구, 2334명**을 불러들였다. 이는 수도권에서 3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여건**과 천혜의 **자연조건**, 상주시의 맞춤형 **귀농·귀촌 장려정책**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우선, **영농정착금(가구당 400만원)**과 **농가주택수리비(가구당 400만원)** 지원과 함께 **토목·건축 설계비 50% 감면**, **집들이 행사비(가구당 4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임시거처로 상주시 **귀농인의 집**도 운영 중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상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입주자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상주의 외지인구 유입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상주시가 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가로등 설치, 전기통신시설 설치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영농정착금(가구당 400만원)과 **농가주택수리비(가구당 400만원)** 지원과 함께 **토목·건축 설계비 50% 감면**, **집들이 행사비(가구당 40만원)** 별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주시는 **공동체 귀농학교**, **도시민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집고치기 학교** 등 다양한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해 예비 귀농인의 성공적인 귀농을 유도하고 있다.

상주시 귀농귀촌도우미(gwinong. sangju. go.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청 내 귀농귀촌특별지원팀을 구성해 보다 많은 귀농인을 상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귀농관련 정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11

3. 사례종합

[충남 청양군]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 감면, 젊은층 공약 장기임대주택 건립

2010년 32명, 2011년 59명에 불과했던 충남 청양군의 귀농귀촌인구는 2014년 385가구, 57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세부지원책을 보면 우선 **귀농인 농지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다. 젊은 귀농인을 우선 지원하는데, 전입 후 5년 이내 5ha까지며 전답은 3만5000원(3.3㎡당), 과수는 4만원(3.3㎡당)으로 관행임차료의 50%를, 매입비의 10%를 최대 **2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농어민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유치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2억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225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농어촌보육교사 80명에게 1억50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10개 마을 1200만원)**과 **농가도우미(14명, 2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32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84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귀농인에게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토록 지원하고, **소형 농업기계**를 우선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젊은 층의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장기(전세) **임대주택 건립**해 공급하고, 산촌생태마을을 활용해 산촌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 청양읍과 인접한 곳에 94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59㎡ 이하 100세대 규모의 전원연립형태 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오는 6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 또 토착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재이농을 방지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통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올해 마을이장과의 **1:1 멘토링제도**를 도입한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임시 거처인 기숙원룸형 '**귀농인의 집**' 조성을 추진 중이며, 귀농귀촌인 에듀팜 농장 2개소를 조성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현장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와 다양한 생업 수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도시민 유치에서부터 정착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귀농귀촌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

3. 사례종합

고창, 상주, 청양을 통해서 본 귀농 귀촌인들을 유도하는 정책

- 1) 교통여건과 천혜의 자연조건, 상주시의 맞춤형 귀농·귀촌 장려정책
- 2) 많은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고창(8명)
- 3) 조례제정 등의 법률적 지원
- 4)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5~10가구) 조성 후 진출입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 지원
- 5) 대규모 정부지원 사업 확보(10억 ~100억)
- 6) 대규모 창농지원센터 혹은 창농 교육센터 운영 (중앙정부의 지원 필수)
- 7) 귀농인의 집 운영
- 8) 각종 경제적 지원정책 영농정착금(가구당 400만원), 농가주택수리비(가구당 400만원), 토목·건축 설계비 50% 감면, 집들이 행사비(가구당 40만원)
- 9) 공동체 귀농학교, 도시민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집고치기 학교 등의 체험교육 실시
- 10) 귀농귀촌 통합 아카데미 운영
- 11) 귀농귀촌 도우미 사이트 운영
- 12) 장학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가도우미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소형농기계 지원. 특히 귀농인에게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연리 2% 3년 거지 5년 균분 상환토록 지원.
- 13) 롤 모델 개발, 1:1 멘토 멘티 제도 운영
- 14) 청년층 유입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

13

4. 해외사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들 중 영국의 'Fresh Start Academy', 일본의 연착륙 정책,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EU의 농업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정책이나 젊은 농업인 양성 및 지원정책, 일반 귀농인 지원정책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될 숙제들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농부가 되려면 정식으로 **농업전문학교**를 입학해 졸업해야 한다. 그러고도 농업현장에서 수년간 실습을 마친 후 **농부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농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일본도 1년 이상의 취농 후에야 농업인의 자격을 인정받아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의 선진 농업국들과 일본의 경우처럼 강도 높은 교육과정과 훈련을 받은 농업인들은 교육 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

어쩌면 우리도 실력 있고 젊은 귀농인과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농업인자격증', 혹은 '농업인사관학교'라도 신설하여 과정을 통과한 귀농인이나 농업후계자들에게 현재보다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을 해야 될 지도 모른다.

전세계 어디를 봐도 농업 소득만으로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다. 농가소득이 100원 이라면 스위스는 54원, 미국은 30원이 농가에 직접 주어지는 보조금인데 우리나라는 쌀 직불금을 최대로 지급했을 때 14원에 불과하다. 우리의 직불금 제도는 3배 이상 올려도 되는 상황이며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3~5년 등) 일반 직불금 보다 상향된 비율의 직불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농업정책, 귀농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기를 바란다.

-물에 빠진 공주-



15

II. 활동보고

1. 2016년 활동보고
2. 예비회의 결과정리
3. 활동 내용

16

1. 귀농귀촌팀 2016년 활동보고

- 귀농귀촌팀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제4기 마을대학을 통해 구성, 본격적인 협의회 활동을 계획
- 마을대학 수료 후 팀별지원사업을 통해 1회의 예비회의, 2회의 정규회의, 3회의 선진지 견학을 시행



1 마을대학
✓ 귀농귀촌팀 구성 및
예비회의의 구성



3 정규회의
✓ 팀별 지원사업을 통한
귀농귀촌팀 회의

2

예비회의
✓ 마을만들기개념정리
✓ 귀농인의 날 제정
✓ 군 단위 이력pool구성
✓ 귀농인DB정리
✓ 작목별 판로개척
✓ 귀농인 현지화
✓ 성공한 귀농인의 정의



4

선진지 견학
✓ 임실치즈마을
✓ 진안 로컬푸드센터
✓ 칠갑산 알프스마을



17

2. 예비회의 결과정리(마을대학)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정리



귀농인의 날 제정



군 단위 인력 pool 구성



예산군 귀농인의 DB자료정리



작목별 판로 개척 및 귀농인의 정의



성공한 귀농인의 정의

18

2. 예비회의 결과정리(마을대학)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 정리

- 1) “행복마을 만들기”는 농촌의 **초고령화**와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촌 마을들이 붕괴되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자구책이며,
- 2) “행복마을 만들기”는 새마을 운동과 상반되는 개념의 새로운 운동으로 지역주민이 마을의 주인공이 되어 추진하는 **상향식** 농촌 살리기 사업이며(**내발적발전론** 참고),
- 3) “행복마을 만들기”는 마을 이장이 이끌어가는 **생활공동체**의 복원과 수익을 전제로 마을사업위원장이 이끌어가는 **경제공동체**의 활성화이며,
- 4) “행복마을 만들기”는 복원된 생활공동체와 활성화된 경제공동체를 **융복합**시키는 과정이며,
- 5) “행복마을 만들기”는 지역마을이 행복마을로 바뀌는 과정에서 귀농귀촌인들의 동참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민과 귀농권촌인들이 상생하기 위한 사업이며,
- 6) “행복마을 만들기”는 **가시적인** 생활환경 개선, 개인과 마을의 재정적인 수입 증대, 마을 공동재산의 확대와 공동운영, 마을 공동의 작업시설 개선, 문화시설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의 유치 등등의 물질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마을 전체의 일체감, 개인의 성취도와 만족감, 행복체감지수 등을 포함하는 창조적인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이며,
- 7) “행복마을 만들기”는 인간성이 점점 사라져 가는 농촌의 세태 속에서 인성이 살아있는 ‘생활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사업이며 ‘**인간성 회복**’이란 개념에 직결되는 한국의 **농촌Renaissance 운동**이다.

19

내발적 발전론

✧ 내발적 발전론이란 용어는 1975년 UN의 “함마솔트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endogenous development”를 일본의 경제학자 츠루미 가츠코가 그렇게 번역하면거 일반화 되었다.

✧ 2차 대전후 선진국의 막대한 원조에 의해 저개발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했지만 선후진국간의 격차는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서구적 근대화, 공업화의 획일적 개발논리에 대항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의 활용을 축으로 토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복지 지향 발전의 사상을 담고 있는 상향식 발전 이론이다.

귀농인의 날 제정

-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를 피하고, 농민의 날 등과의 중복을 피한다.
- **4월 20일(곡우)와 3월 05일(경칩) 중 택일 하는 것으로 제안.**
- ♣ 곡우 - 곡우 때면 봄비가 잘 내리고,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며,
- 백곡이 윤택해지고,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 된다. 예부터 곡우 때는 벼농사의 파종이 있는 날이므로 죄인도 잡아가지 않았다.
- ♣ 경칩 - 겨울잠 자는 벌레나 동물, 식물이 깨어나고, 만물이 움트는 시기.
- 이때 옛 부터 젊은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씨앗을 선물로 주고받고 날이 어두워지면 동구 밖에 있는 수나무 암나무를 도는 사랑놀이로 정을 다졌습니다.
- 경칩은 토종 '연인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농인의 날 제정은 표결결과 곡우와 경칩이 동수로 나와서 결정 없이 그대로 센터에 보고함.
- 귀농귀촌팀이 귀농인의 날을 제정 선포한다는 것은 대표성의 문제 등을 안고 있었으며 연구를 위한 일종의 practicum 으로 간주함.

예산군 단위의 인력 풀(pool)

- 귀농귀촌인(현재 51명)의 인력 POOL을 조성하여 권역별로 DB화 한 후 적극 활용하고
- 숙련된 인력들을 양성하여 권역별로 공유하는 방안을 활용

귀농귀촌인들의 DB화

- 최초 인원을 51명으로 귀농귀촌인 DB 자료를 작성함.
- 귀농연도별/지역별/규모별/작목별로 정리.
- 향후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강 필요
- 귀농년도에 관계없이 DB 작성

21

작목별 판로 개척

- 판로는 주변의 연고 판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 신뢰를 지키자
-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각 종교 단체, 기업체,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SNS 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를 강구한다.

성공한 귀농인의 정의

이미숙

- 귀농은 우리 부부에게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현재는, 내 일이 있어서 내일을 걱정 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귀농인이 성공한 귀농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원

- 주말이면 벤츠 타고 골프 치러 가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는 귀농인을 성공한 귀농인 이라고 봅니다. 벤츠를 타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선결조건은 돈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는 간절함**이며,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이며, 행복한 귀농인이 성공한 귀농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화

- 세속에서 “부자”의 정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인데, 성경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 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것을 물질에 두면 안되고 “마음의 여유”로 두고 싶습니다. 물질만 추구하다 보면 도시의 삶이나 똑 같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식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농촌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귀농인은 성공한 귀농인이다”라고 정의 합니다.

22

3. 활동 내용(정기회의)

01

1차 회의 : 귀농귀촌팀 및 청년활동가 합동회의(16년 11월 09일)

- 귀농귀촌 & 청년활동가 두 팀의 연합회의를 통하여 공동안건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
- 예산군 마을만들기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
- 두 팀의 팀원 간 친교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며 협조와 공동작업
- 평소 교류가 없던 두 팀간의 교류 및 화합



23

3. 활동 내용(정기회의)

02

2차 회의 : 4개 안건 회의진행(16년 11월 18일)



타 팀과의 협력

- ✓ 청년활동가팀과의 합동회의 내용정리
- ✓ 마을위원장팀 협력 중요

농업기술센터 협력

- ✓ 법인설립 및 세무교육 과정 협력요청예정

1안건

법인설립

- ✓ 2017년 2월말 완료예정
- ✓ 전문가 초빙 및 토론회진행

2안건

3안건

선진지 견학 계획

- ✓ 임실치즈마을
- ✓ 진안군 로컬푸드센터
- ✓ 청양군 칠갑산 알프스마을
- ✓ 견학일정 및 계획 토의

4안건



24

3. 활동 내용 (선진지 견학)

① 임실치즈마을, 임실치즈테마파크 견학

- ❖ 사무장과 함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시행
- ❖ 테마파크 체험사업부 최경 부장 : 조직구성 및 사업진행과정 브리핑



25

3. 활동 내용 (선진지 견학)

② 진안군 로컬푸드센터 견학

- ❖ 로컬푸드센터의 조직구성, 운영, 성공요인 발표를 듣고 법인구성의 출자 및 구성요령 회의
- ❖ 귀농귀촌인들은 사업의 아이디어와 추진을 주도하였고 향후에 현지인들이 주주로 합류하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조화를 완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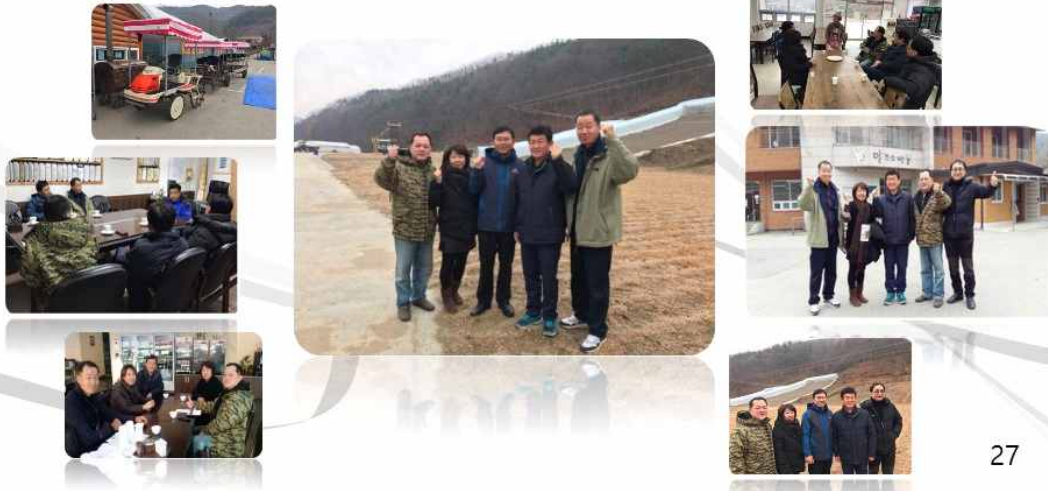


26

3. 활동 내용 (선진지 견학)

③ 청양군 칠갑산 알프스마을

- ❖ 황준환 위원장을 통해 조직구성과 운영, 앞으로 비전 및 향후방안에 대한 발표 후 법인구성 회의진행
- ❖ 청양의 알프스마을은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서 규정되어지는 이유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



27

3. 활동 내용(정기회의)

03

6차 회의 : 중 정리 회의진행(16년 12월 06일)

- ▶ 협의체 구성 : 법인체의 2017년 2월중 완료를 목표
- ▶ 중 정 리 : 귀농귀촌팀은 마을만들기라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실천적, 체험적 경험을 쌓았고 의기투합하는 좋은 기회였음
- ▶ 기대효과
 - 1) 지속적인 모임의 유지
 - 2) 팀의 결속력 강화
 - 3) 귀농귀촌인의 모임체 결성의 발판 마련
 - 4) 팀이 나아갈 방향과 활동의 비전 확립
 - 5) 센터 내의 다른 팀들과의 상호이해와 유기적 협력 관계 상승
 - 6) 센터에서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선제적 능력 함양

28

Ⅲ.향후 계획

1. 마을만들기를 위한

16가지 제언

2. 향후 과제

29

1. 마을만들기를 위한 16가지 제언

- 01) 마을 사람으로부터 자발적 동기가 나와야 한다.
- 02) 토의로 합의를 끌어내고 협력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03) 뚜렷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 04) 마을 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 05) 마을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한다.
- 06) 권위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07) 조직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 08) 마을 만들기의 중심 축으로 이장팀과 귀농귀촌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30

1. 마을만들기를 위한 16가지 제언

- 09) 마을 만들기의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 10) 성과와 과정에 동시 집중해야 한다.
- 11) 마을 외부 조직과 연대해야 한다.
- 12)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영역을 상정하여 행정과 주민 사이의 co-governance를 통하여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 13)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14) 1인 10보 전진 보다는 10인 1보 전진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 15) 마을 만들기 리더를 꾸준히 길러 내야 한다.
- 16)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2. 향후 과제

- 01) 예산군 귀농귀촌협의회(협의체명 미정)의 법인화 추진 (8 월말 예정)
- 02) 귀농인들의 DB(데이터베이스) 지속적인 업데이트 (연도별/지역별/작목별)
- 03)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정책목표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선제적 능력 함양.
- 04) 행복마을지원센터 내의 다른 팀들과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관계 함양
- 05) 예산군의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위하여 예산군과 농기센터, 농업기술원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06) 예산군 마을만들기의 조인과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계획서 작성 (2차 팀별지원사업)
- 07) 행복마을지원센터 내에서 팀이 나아갈 방향과 활동의 비전 확립
- 08) 예산군 귀농귀촌 네트워크를 활용한 독자적인 사업 개발

앞으로 “귀농귀촌네트워크”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창구로서
내발적발전론의 장점을 확대하고,
1인 10보 전진보다는 10인 1보
전진의 방식으로 예산군의 마을만
들기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란 복원 된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융복합 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때

마을위원장 및 다른 협의회들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귀농귀촌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조별토론**| 실천과제 및 주체별 역할 도출 |****마을과 귀농인, 화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1)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 어떤 방법이 모두에게 좋을까?
: 귀농인 직접지원, 소속 마을 지원, 원주민 역차별 해소 방안
- (2) 올바른 토지 정보 제공과 매매 어떻게 해야 할까?
: 빈집정보 온/온라인 제공, 이장을 통한 토지매매 정보 제공
- (3) 귀농인이 마을과 화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은?
: 마을기금, 마을회의 참석, 마을규약 제정

토론1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 어떤 방법이 모두에게 좋을까?

■ 2016년도 주요 쟁점과 의견 정리

쟁점	귀농귀촌인 대상의 직접(현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구분	동의	반대
도출 의견	■ 귀농인의 <u>초기 정착 어려움 해소</u> ■ <u>젊은 인구 유입</u>을 위해 필요 ■ 원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되며, <u>마을 기금 적립에 유용</u>	■ 현금 <u>지원을 받을 목적으로</u> 이사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 ■ <u>귀농에 대한 개념</u>이 흐려질 수 있음 (지원금 용어의 문제) ■ 원주민 소외감, <u>역차별</u> 발생 가능

■ 실천과제와 주체별 역할

키워드	귀농인 직접지원 vs 소속 마을 지원, 원주민 역차별 해소 방안
실천 과제 도출	■ <u>귀농의 명확한 개념 정립</u> 필요 : 단순 이사(농촌 삶을 지향하는 사람 등)와 귀농의 구분 필요 - 명확한 지원 대상은? ■ <u>마을단위 지원 vs 귀농인 개별 지원</u> - 그 방향은? (추가 실천 과제 도출)

구분	마을	귀농귀촌자	행정·중간지원조직
실천을 위한 주체별 역할			

■ 2016년도 주요 쟁점과 의견 정리

쟁점	땅과 빈 집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분	동의	반대
도출 의견	■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기초 서비스로서 필요 ■ 양질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잘못된 정보 유통 방지) - 부동산의 고액 사기 예방	■ 무분별한 정보 노출에 따른 마을의 피해 발생 가능 ■ 정보의 낮은 효용성(실제 거래성사는 정보량과 무관, 개인거래 다수) ■ 정보의 유지관리 어려움

쟁점	농촌 마을 땅은 반드시 이장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구분	동의	반대
도출 의견	■ 이장의 개인 권한이 아니라 마을 땅을 ‘공동자산’으로 여기는 문화 형성과 소통의 차원에서 찬성 - 이장의 공정한 역할 전제	■ 이장의 권한이 높아짐에 따른 부작용 우려 ■ 정보, 거래과정의 다양성 훼손 우려 (창구의 다양화 필요)

■ 실천과제와 주체별 역할

키워드	빈집정보 온/온라인 제공, 이장을 통한 토지매매 정보 제공
실천 과제 도출	■ 귀농/귀촌자 선별 지원? ■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은? : 매매보다는 임대 유도? ■ 정보의 유통과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주체 고민) ■ 빈집 정비와 관리 방안? ■ 토지 거래를 위한 매뉴얼 정리 필요한가? 그렇다면 누가? (추가 실천 과제 도출)

구분	마을	귀농귀촌자	행정·중간지원조직
실천을 위한 주체별 역할			

토론3

귀농인이 마을과 화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은?

■ 2016년도 주요 쟁점과 의견 정리

쟁점	새로 이사 오면 마을 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구분	동의	반대
도출 의견	- 원주민이 형성해온 <u>공동자산(노력)</u>을 존중하여, 타당한 선(고정금액)에서 필요(마을회의 필수) - 마을기금, 찬조금 구분	- 텃세로 여길 수 있음 - 청년의 경우 수백만 원의 마을기금은 <u>큰 부담</u>이 되어 <u>이주를 막는 원인</u>이 될 수 있음

쟁점	마을회의에 나오지 않는 귀농귀촌인은 주민이 아니다	
구분	동의	반대
도출 의견	- 법적 문제를 떠나 <u>불참시 현실상 실제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u> - 주민 공동활동의 기본사항이자 <u>공동 관리 차원</u>에서 회의 참여는 필수	- 직장 생활 등 <u>삶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u>하고 구성원의 다양성 필요 - 회의참여 못함에 따른 다른 방법 도입 고려 필요(예 : 봉사, 찬조금 등)

■ 실천과제와 주체별 역할

키워드	마을기금, 마을회의 참석, 마을규약 제정
실천 과제 도출	- 귀농인 대상 사전 <u>의무 교육</u> 필요(마을에 대한 이해) <u>마을 규약</u> 필요 : 합리적인 금액 산정과 투명한 관리 필요 - 주민의 자격은? - 기본 의무 사항은? - 회의 참여 부재시 다른 대체 방안은? (추가 실천 과제 도출)

구분	마을	귀농귀촌자	행정·중간지원조직
실천을 위한 주체별 역할			

| 부 록 |

**“귀농귀촌을 둘러싼 10대 쟁점 토론”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8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귀농귀촌을 둘러싼 10대 쟁점 토론> 설문조사 분석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 연구회, 설문조사일 : 2016.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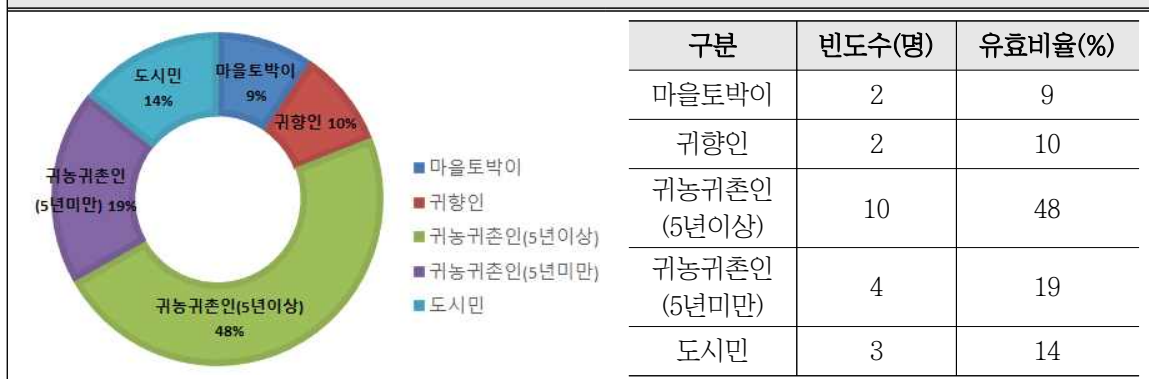
1. 기본사항(설문 참여자 : 21명)

질문1

1-1. 귀농귀촌 여부

- 설문 참여자 21명 중 5년이상 귀농귀촌인 10명, 5년미만 귀농귀촌인 4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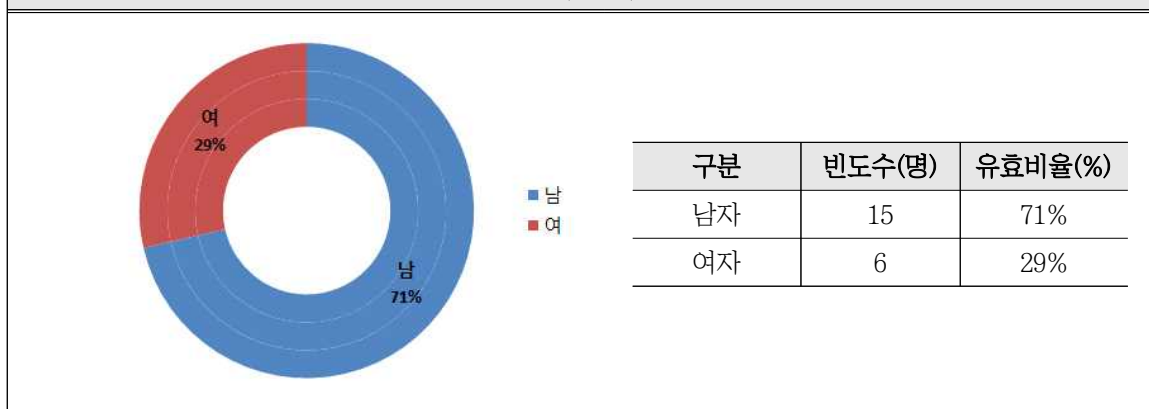


질문2

1-2. 성별

- 설문 참여자 21명 중 여성은 6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음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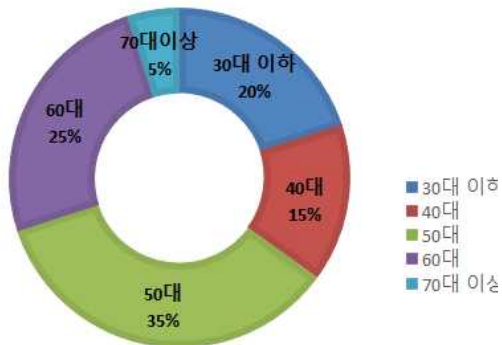


질문3

1-3. 연령대

-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7명, 60대가 5명으로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함.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나타나는 결과임

조사 결과



구분	빈도수(명)	유효비율(%)
30대 이하	4	20
40대	3	15
50대	7	35
60대	5	25
70대 이상	1	1

질문4

1-4. 가족형태

- 가족구성은 부부만 거주하는 세대가 38%, 부부+자식 세대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기타의견으로 부부+부모+자식의 3세대로 구성된 가족 2명인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구분	빈도수(명)	유효비율(%)
혼자거주	3	14
부부만	8	38
부부+부모	0	
부부+자식	7	34
기 타	3	14

2. 쟁점 토론에 대한 의견(설문 및 토론 내용 종합 분석)

※ 토론방법 :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을 표시한 후에 그 이유에 대해 제시

질문1

2-1. 귀농귀촌인 대상의 직접(현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 전체 의견 : ‘매우 동의’와 ‘매우 반대’ 사이에 다양하게 의견이 갈림. 원주민 소외감, 보조금 ‘사냥’ 등 직접 지원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귀농귀촌에 절실하고 절박감이 있으며 농촌 마을 발전이 도움이 될 사람에겐 직접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 찬성 의견 : 초기 정착 어려움 해소 및 젊은 가구 유치를 위한 인구 유입방안으로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현함. 단 사전교육 및 선정과정의 제도 보완을 전제로 함.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제도의 운영방식이 좀 더 세련되어야 함
 - 반대 의견 : 현금 지원을 하면 돈 목적의 이사가 생겨 마을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음. 또한 지원금으로 인해 원주민의 소외감이 심각해져서 역차별이 될 수 있음(예, 이사가는 데 무슨 돈~~). 귀농 상담 하면서 “얼마 줘요~~” 하는 질문이 가장 난감한 현실이 되어버렸음
 - 기타 의견 : 단순 이사와 농촌 삶을 지향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귀농귀촌인에게 직접 지원하기보다 마을에 지원해야 마을참여가 높아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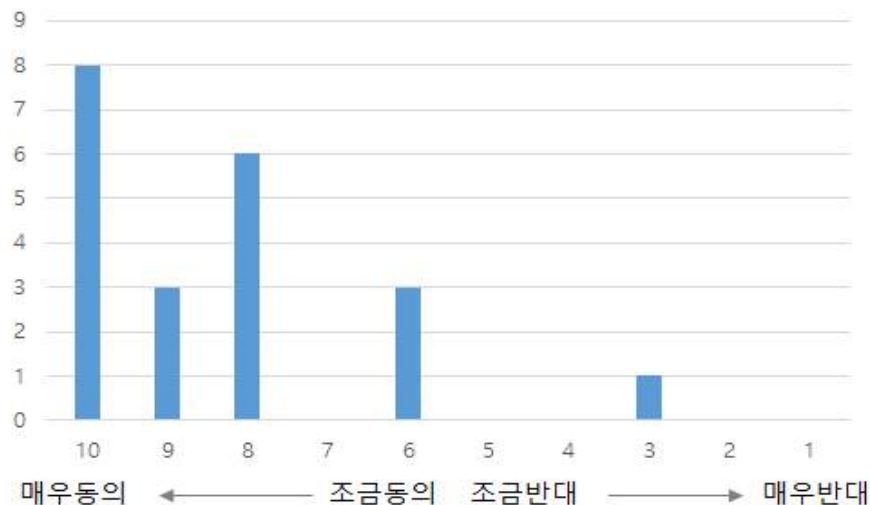
질문2

2-2. 땅과 빈 집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전체 의견 :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고, 반대하는 의견은 매우 적음. 하지만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정보 관리도 필요함이 제기됨. 정보 제공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기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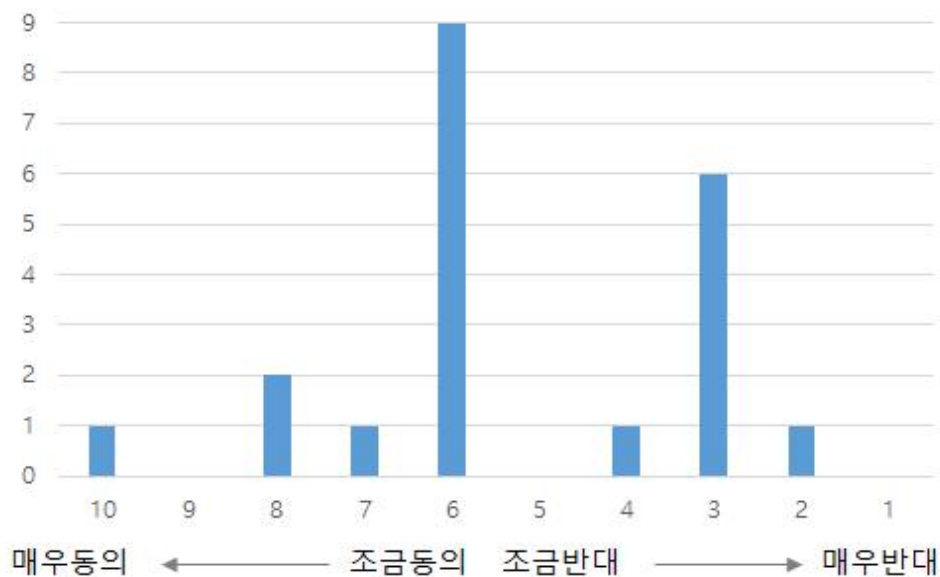
- 찬성 의견 : 귀농귀촌 희망자 및 정착 초기에 매우 필요한 정보이므로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정보수집이 불편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양질의 정보망이 필요함. 귀농귀촌인 유입 유도를 위한 기초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단, 희망자에 한해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되, 정보제공 이후의 알선, 매매 등 과정에 대한 개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정보 제공의 창구가 매우 중요하고,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업체의 고액 수수료를 해결할 수 있음
- 반대 의견 : 정확하지 않은 정보 노출로 인해 마을의 피해(비용 상승, 사기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정보의 질 관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실제로 거래성사는 제공되는 정보량과 상관없이 개인간 거래가 많은 것이 현실임. 실제로 정착하겠다는 절실함이 전제가 되어야 정보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기타 의견 : 초기에는 매매가 아닌 임대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함.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 농촌 빈집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 마을(공동체)에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함
 - 정보를 누가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의 문제(주체 고민)
 - 정보의 정확성 오류 사례(관리의 중요성)
 - 빈집은 지역 황폐화의 큰 영향(관리 필요성 높음)
 - 정보의 정확한 전달 중요(내용, 타겟 등)



질문3

2-3. 정책 대상에서 귀향인이 1순위가 되어야한다

- 전체 의견 : 귀향인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는 경향이 강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 찬성 의견 : 농촌 인구의 절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이 유리한 귀향인 우대해야함. 특히 갈등 소지가 적고 마을 공동체 소멸 위기에서 애향심, 도시 경험 등 귀향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음. 갈등 해소 차원에서 귀향인의 정착이 가장 효과가 높음. 마을리더의 성공사례 중에서 귀향인 비율이 높은 것을 이해하면 귀향인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
 - 반대 의견 : 연고가 없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상대적 약자인 초기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지원 정책이 필요함. 또한 귀향 여부가 특별히 다르지 않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핵심은 농민 인구 확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함. 남편 기준이고 부인 고향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임. 귀향자가 정책적으로 우대되면 연고 없는 귀농귀촌인은 어차피 사회적약자로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기타 의견 :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으며, 귀향인 역시 도시민 성향이 높은 것도 사실임. 굳이 1순위로 구분하여 우대할 필요까지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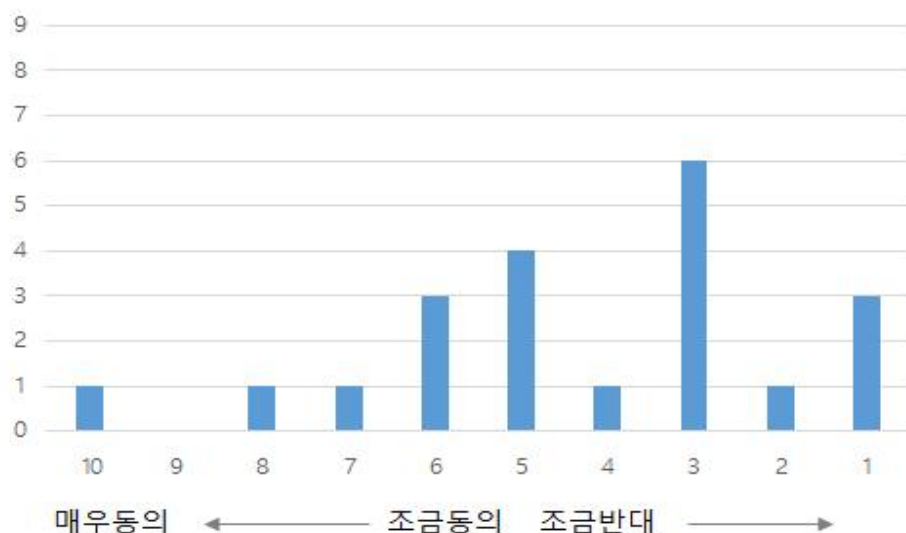
질문4

2-4. 농촌 마을 땅은 반드시 이장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 전체 의견 :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현실에서 이장 개인의 비합리성이 강하고 공정한 거래의 매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이해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 찬성 의견 :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소통하는 창구로 찬성하며, 이장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마을 땅을 공동자산으로 여기는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음. 토지 투기와 부채지주를 예방할 수 있음. 단, 이장이 마을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
- 반대 의견 : 완전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하며, 이장의 권한이 높아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며, 정보·거래과정의 다양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창구의 다양화가 필요함. 또한 이장이 부동산 중개에 따른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됨. 지금도 이장이 마을 사업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거래 권한까지 부여하면 또다른 ‘완장’이 될 수 있음. 토지 거래와 관련된 경로와 방법론이 매뉴얼로 정리되어 제공되어야 함
- 기타 의견 : 이장-위원장의 갈등이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부동산·동산 거래의 방법(공공성 강화)과 노하우를 정리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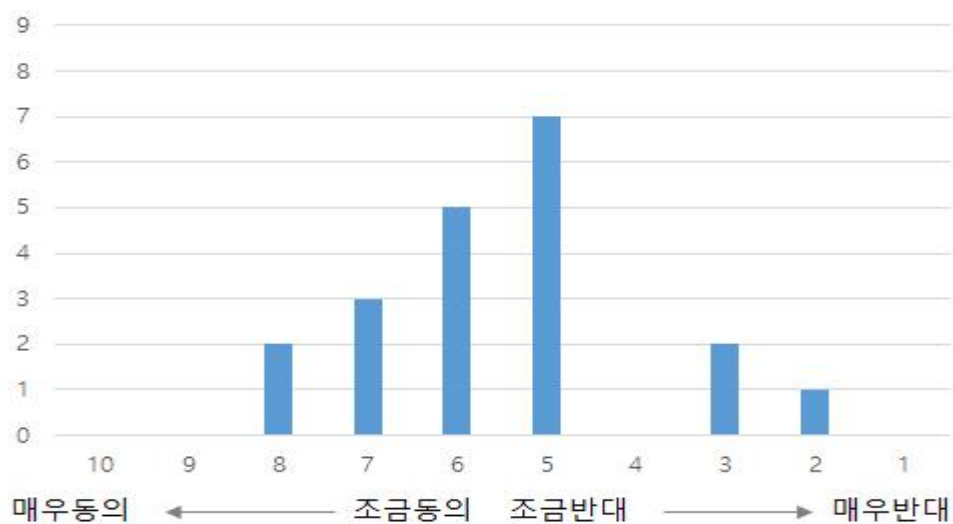


질문5**2-5. 마을 밖(읍면소재지)에 살아야 할 귀농귀촌인이 더 많다**

○ 전체 의견 : 가치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중간적인 입장의 의견이 많음. 읍면 소재지의 임시 거주공간 확보와 연계하여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 찬성 의견 : 마을내 거주를 자제시켜야 하며 심사를 해야 함. 마을과 더불어 살기 힘든 귀농귀촌인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임. 막연한 전원생활을 동경하며 농촌 마을에 정착하려 하면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음.
“왠지 마을이 부담스럽다면” 마을 밖에 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 반대 의견 :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므로 막을 이유가 없음
- 기타 의견 : 개인의 주거지 결정을 뭐라 할 수 없으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필수적으로 귀농교육과 마을 거주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상담을 통해 거주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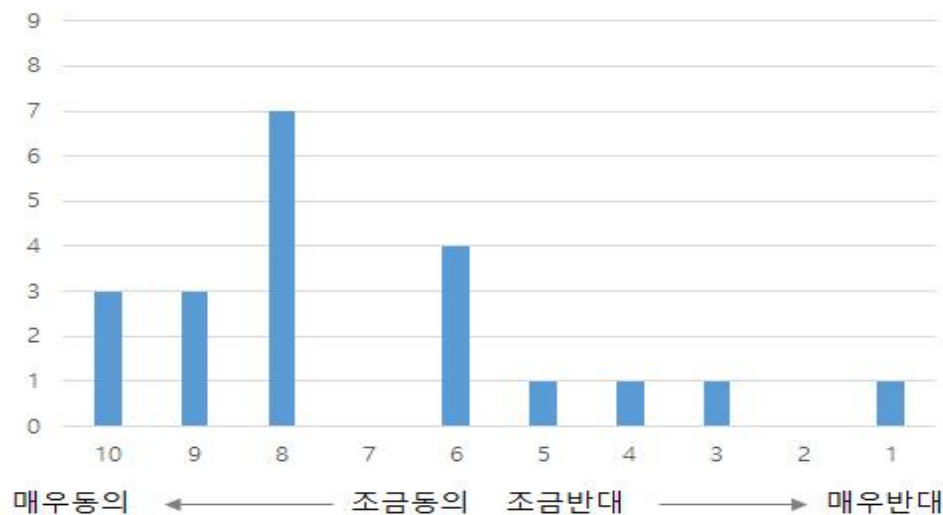
질문6

2-6. 새로 이사오면 마을 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 전체 의견 : 기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음. 단, 합리적인 기준이 마을회의를 통해 제시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함. 또 정착 자금조차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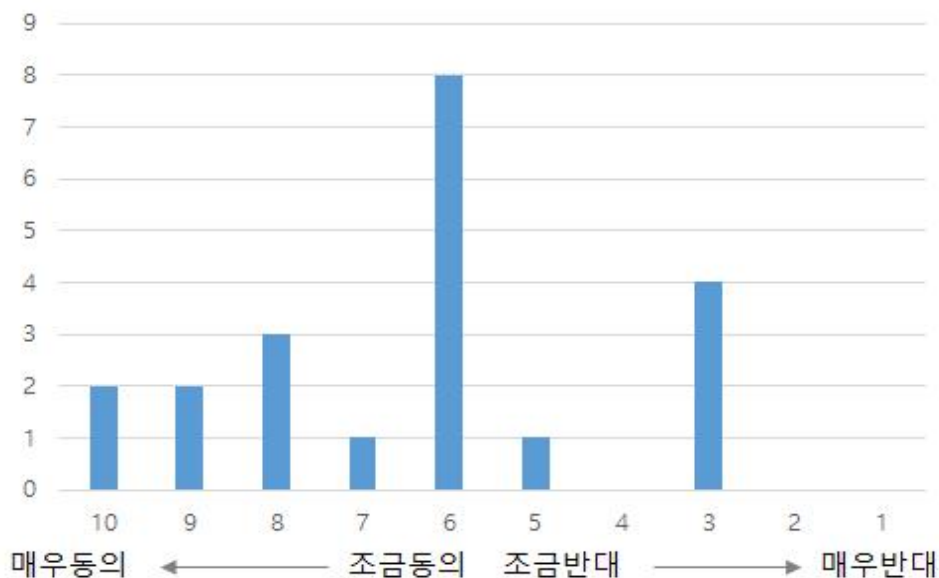
- 찬성 의견 : 원주민이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공동 자산(노력)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 기금을 반드시 내도록 정하고, 귀농귀촌인이 마을 주민으로 다가가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귀농교육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사전교육이 필요함
- 토론 참석 주민 마을의 마을기금 사례 : 마을기금 최소 100만원(서천군 마서면 나궁리 마을). 기초기금 쌀 1가마와 상조회 가입(홍성군 금당리 00마을), 기초기금은 마을 가입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음
- 마을기금과 찬조금을 구분하고 고정된 금액을 부여해야 하며, 마을기금과 관련된 규약을 정하고 합리적인 금액 산정이 필요함. 또 기금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반대 의견 : 귀농귀촌인에게는 또 다른 세금이며 텃세로 보일 수 있음. 나아가 청년의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마을기금 납부가 큰 부담이 되어 마을 이주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질문7

2-7. 마을회의에 나오지 않는 귀농귀촌인은 주민이 아니다

- 전체 의견 :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마을회의 자체가 비합리적인 경우도 있고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등 반대 의견도 있음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 찬성 의견 : 마을회의는 주민 공동활동의 기본임. 회의도 나오지 않으면 절대 주민이 아니므로 열외시켜야 하며, 법적 문제를 떠나 참여 안하면 실제 주민으로 인정하면 안됨. 마을밖에 전원주택 지어놓고 캠프 설치, 개 키우기, 펜스 설치 등 극단적인 경우가 많음. 회의도 나오지 않으면 이장 입장에서 마을 관리가 매우 어려움
 - 나궁리 마을규약의 주민 자격 : 주택등기를 마친 세대의 세대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부여. 이사 나간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제명 처리
 - 반대 의견 : 회의를 안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회의를 나가도 차별받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마을 주민이 아니라고 보면 안됨. 오히려 농촌 마을도 주민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삶의 방식(직장 생활)이 다름을 인정(존중)할 필요가 있음.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의 참여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임
 - 기타 의견 : 회의 참석 못함에 따른 다른 참여(봉사) 방안, 예를 들어 찬조금 납부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즉, 회의 미참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자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함



질문8**2-8. 귀농인이란 용어는 차별적이라 바뀌어야 한다**

- 전체 의견 : 동의와 반대가 골고루 분포함.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 찬성 의견 : 귀농인이란 '낙인'은 평생 따라다니므로 바뀌어야 함. 귀농인이란 용어 자체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융화가 오히려 힘들기도 함
 - 반대 의견 : 용어 바뀐다고 달라질 것도 없으며, 귀농인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귀농인을 구분하는 정책과 연동되는 것이 문제임. 귀농인 정책 지원을 위해 계속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기타 의견 : 새로운 용어로 새농민, 새농인 등을 제안함. 귀농인의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임. 귀농 귀촌인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원주민, 선주민, 투박이 등. 이런 용어도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질문9**2-9. 행정의 총괄 정책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한다**

○ 전체 의견 : 현재와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총괄 부서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조금 많고, 반대한다는 의견도 강함. 시군별 특성에 맞게끔 다양해지고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제기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 찬성 의견 :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부문 관할 및 노하우가 있으므로 당연히 맡아야 함. 단, 농업규모별로 세부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부서간 협력 지원이 필요함
- 반대 의견 : 농업 기술 중심이라 정책 전반을 주도하지 못하며, 귀농인 대비 귀촌인이 훨씬 많은 현실도 반영하여 바뀌어야 함. 농업기술센터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공무원이 귀농귀촌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 차원의 제도적 틀 필요(인력 및 예산 지원 동반)
- 기타 의견 : 행정부서와 별개로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 영향력이 중요하므로 공무원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귀농귀촌은 특정 부서만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업무협조가 훨씬 중요함. 행정의 건설과 농촌개발팀이 주도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김. 시군별로 다양화가 필요함



질문10**2-10.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

- 전체 의견 : 민간 운영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현재의 직영 형태가 단계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기됨
- 토론 의견 및 주관식 의견
- 찬성 의견 : 행정은 예산만 지원하고, 민간이 반드시 운영해야 전문성과 현장성이 생김
 - 반대 의견 :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으며, 행정이 맡아야 공공성이 명확해짐
 - 기타 의견 : 현재와 같은 직영방식은 과도기의 선택으로 이해하고, 민간 역량이 준비된 곳부터 민간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함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